



SK텔레콤이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선보인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 'AI바리스타로봇(왼쪽)', 경남교육청 창원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LG전자의 'LG 클로이 가이드봇'.



사진제공 | SK텔레콤·LG전자

어르신 돕고, 커피 타고...로봇이 달라진다

SKT 최근 'AI바리스타 로봇' 출시
삼성 연내 시니어케어 로봇 계획
LG는 도서관 맞춤기능 로봇 공급
KT 실외자율주행 로봇 확산 준비

새해 서비스 로봇 적용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한편,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등 로봇 사업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비스 로봇 확대로 호텔과 쇼핑몰, 식당,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T, 바리스타 로봇 출시

SK텔레콤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 'AI바리스타로봇'을 출시했다. 두산로보틱스의 로봇 제조 및 서비스 역량에 SK텔레콤의 빅테크 기술을 결합한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다.

커피와 에이드 등 20여 종의 음료를 제조할 수 있다. AI바리스타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및 보안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으로 점주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인 커피로봇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대형 카페 운영사와 프랜차이즈형 로봇상품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와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향후 5년 내 국내 커피로봇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SK텔레콤은 로봇을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2'에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의 일환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AI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씨메스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양사는 AI 로봇 사업 분야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물류 시장은 물론 세계 최대 물류 시장인 미국 진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낙훈 SK텔레콤 인더스트리 AIX CO 담당은 "식당, 물류창고, 방역 현장 등 우리 일상 속에 로봇이 함께하는 시대에 개인 고객은 물론 기업고객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즐거운 경험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연내 'EX1' 공개

삼성전자도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

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을 잇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1년 8월 발표한 240조 원 투자 계획에도 로봇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초엔 로봇사업과 태스크포스(TF)를 로봇사업팀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로봇사업 확대의 첫 단추로 올해 시니어케어나 운동 보조기구에 속하는 로봇 외골격 슈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다"며 "로봇을 신사업으로 접목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외골격 슈트를 시작으로 로봇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첫 투자처로 로봇 분야를 낙점하기도 했다. 이달 초 협동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약 590억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한 회사로, 이족보행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KT도 영역 확대

이미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내놓으며 로봇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LG전자와 KT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

자는 최근 경남교육청 창원도서관에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맞춤 기능을 탑재한 'LG 클로이 가이드봇' 1대를 비롯해 'LG 클로이 서브봇' 3대를 공급했다. LG 클로이 로봇에 도서관리시스템과 연동한 맞춤형 솔루션을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현재 가이드봇, 서브봇, 바리스타봇, 세프봇, UV-C봇, 캐리봇 등 7종의 LG 클로이 로봇 라인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는 27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서빙 로봇 및 물류 로봇 등 관련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이 LG클로이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넓혀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T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사업 확산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로봇 기술 기업인 뉴빌리티와 손을 잡았다. KT는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로봇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AIS 비시로봇과 AI방역로봇, AI호텔로봇 등 다양한 로봇 상품을 출시해 왔다. KT는 뉴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실내 공간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실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리조트, 도심 등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어디에서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U+,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강화 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선보여

LG유플러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 '헤어져서 팝니다(사진)'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썸타임즈는 썸타는 남녀의 이야기를 음성으로 제작해 귀로 듣는 오디오 드라마다. 배우 김재영이 IT업계의 인재이자 이별 후유증을 겪는 '이준표' 역을, 배우 윤소희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한 웹소설 작가 '이주아' 역을 맡았다. 콘텐츠는 U+모바일tv를 비롯해 웹다, 스포티파이, 플로 등 국내외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팟캐스트를 비롯해 무선 이어폰, 인공지능(AI) 스피커, 커넥티드카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오디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오디오 드라마라는 새로운 시도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썸타임즈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공개한 먹방 예능 '디저블래-디저트먹어블래', 2월 론칭을 앞둔 아이돌 예능 '교양있고', 티빙 오리지널 '아워게임'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전담 조직 'STUDIO X+U'를 중심으로 예능, 다큐, 음악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김용세 LG유플러스 콘텐츠 IP시너지팀장은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장르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콘텐츠로 빠르게 적용하는 실험적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며 "새롭고 도전적인 콘텐츠로 고객경험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지마켓, 해외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지마켓은 내달 12일까지 노랑풍선과 함께 '해외항공권 최대 1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연다. 지마켓 단독 특가 라인업으로 준비한 일본 및 동남아 노선 항공권을 판매한다. 2월 5일까지는 티웨이항공, 2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제주항공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

매할 수 있다. 특가 전용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발급되는 '5% 항공쿠폰'으로 할인 받으면 된다. 지마켓에서 '노랑풍선 항공권' 검색 후 상단 배너 클릭 시 확인 가능하다. 지마켓은 'G마켓 여행MD'가 추천하는 지방출발 모이보기' 프로모션도 상시 진행한다. 부산, 대구, 청주, 무안, 양양, 제주 등에서 출발하는 고객들을 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여행상품을 소개한다.

GS25매장서 중고폰 수거서비스

미디어로고는 GS리테일과 전국 GS25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중고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고폰 매입 플랫폼인 '셀로' 앱이나 웹에서 수거 방법 선택 시 '편의점 택배

배로 직접 배송할게요'를 고르고, 택배 예약 번호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12자리 승인 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고객은 '판매 신청 완료하기' 클릭 후 가까운 GS25 매장의 택배기 메인화면에서 '쇼핑몰 거래' 선택 후 승인번호를 입력한다. 단말 무게 측정 후 운송장을 출력해 반납 봉투에 포장한 뒤 카운터에 맡기면 된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30일 (월) 음력: 1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결단력을 가지고 의지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명예가 따르고 급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자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몰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시도하라. 너무 서두르지 않는 말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남편으로 인한 관계수를 조심 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맞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이성문제, 탈선도 조심하라.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만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원숭이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고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노력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기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결술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이성 관계를 조심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0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신문경영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사진부장	고충철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